

구례군 카라반 과세, 고흥군 통합쓰레기 차량 특허 전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최우수상'

최근 캠핑문화가 대중화되면서 관광지마다 설치되고 있는 '고정식 카라반'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지는 구례군의 제안이 '2015 전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지방세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동시에 수거가능한 통합쓰레기 분리수거차량을 개발해 특허를 낸 고흥군은 세외수입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

전남도는 최근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를 위한 '2015 전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강진에서 개최,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세 7개 과제와 세외수입 7개 과제 등 14개 분야에서 각 시·군의 발표가 있었으며, 최우수작과 우수작을 선정했다.

지방세분야에서는 구례군의 '고정식 카라반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고흥군의 '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특허)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세입 창출 방안'이 각각 최우수상을, 여수시의 광양시가 우수상을, 완도군과 강진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현장에서 고생하는 여수경찰서 정보과 식구들과 동료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겠습니다”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가 전장에서 유일하게 베스트 정보과장을 배출했다. 주인공은 서채수 정보보안과장(57·사진).

16일 여수경찰은 “서채수 정보보안과장이 최근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베스트 정보과장 시상식에서 관련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베스트 정보과장은 경찰청이 전국 251개 경찰서 정보과장 중 가장 업무 수행력과 성과가 탁월한 정보과장을 심사를 통해 매년 선발하는 제도. 서과장은 지난날 ‘제70주년 경찰의 날’에도 안전한 국가지안확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에 베스트 정보과장에 선정돼 여수경찰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업무의 대부’로 불리는 서과장은 진도 출신으로 지난 1980년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그동안 진도·화순·목포경찰서 정보과장 등 지난 10여년 동안 일선 경찰서 정보업무를 총괄, 대형 노사분규와 집단 민원을 해결해 왔다. /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서채수 여수경찰서 정보과장 전국 베스트 정보과장에 선정



“수많은 스승 만났지만 책만한 스승 없었다”

본사 은ekan칼럼 필진 심명섭 전남대 도서관 과장 에세이집 발간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의 심장인 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살아왔다. 출발이 없게 같은데 어느새 공직 생활의 종착역이 보인다.”

광주일보 은ekan칼럼 필진인 심명섭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장이 내년 2월 정년을 앞두고 자전적 에세이집 ‘못재 너머 사래 긴 발을’ (국학자료원) 펴냈다. 에세이집은 그동안 써온 글들을 취사선택해 모은 것으로 소소한 신변잡기부터 가족 이야기, 책과 독서에 대한 단상, 인생에 대한 성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확실하게 보이는 공직 생활의 종착역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뒤돌아볼 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한두 점 지난날들의 기억들이 내안에 꿈을 거리고 있음을 느낀다”며 발간 배경을 밝힌다.

장성 출신인 심과장의 맏자리는 남명 못재 인공이다. 못재는 그의 고향 뒷산으로 장성과 광주를 연결하는 터널(못재 터널)이 있는 곳이다.

책 제목 ‘못재 너머 사래 긴 발을’은 약천 남구만(1629~1711)의 ‘권농가’에서 따왔다. “동창이/ 밭았나/ 노고지리/ 우지진다/... 재 너머/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느냐”

‘2015 으뜸 서구민 한마당’ 행사



지난 14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2015 으뜸 서구민 한마당’ 사회적 경제현마당’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에 참가한 동천동 댄스팀이 공연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향 사람들에 한국문화 전할 수 있어 가슴 뿌듯”

다음달 캄보디아서 문인화전 여는 이주여성 한예진씨

“고옥한 수목 향을 담아 그리운 고향에서 개인전을 갖는다니 꿈만 같아요. 무엇보다 캄보디아 사람들과 부모님에게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전할 수 있어 가슴 뿌듯해요.”

양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캄퐁섬에 명 티반니씨는 “언어도 서투르고 문화도 다른 마나 먼 이국땅에서 한글을 깨치고 그림까지 배워 고향인 캄보디아에서 전시회를 갖는 것만으로 너무 기쁘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캄퐁섬에서 지난 2007년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온 그는 가정주부이자 만학도이다.

“수십 년간 공부한 한국학생들도 힘든데, 정말 어려웠지만 수능을 본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죠”

목포대와 세한대에 수시 합격한 그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 문화관광 관련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었다.

그가 처음 붓을 잡게 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미술반 선생인 정태관 화백의 권유 덕분이다.

“먹물·화선지라는 말조차 낯설어 알아듣지 못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었어. 특히 사군자를 배울 때 난(難)을 치기 위해서는 겪는 각도가 중요하데 그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군자를 그리는 연습만 무려 3년 넘게 할 만큼 열정을 쏟아 부었던 그는 “지금도 구도

목포로 시집와 대학수시 합격

사군자 배워 전시회 열기도

영문학 전공 문화관광 일 하고파

학,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현재 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좀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지난 12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치렀다.

“수십 년간 공부한 한국학생들도 힘든데, 정말 어려웠지만 수능을 본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죠”

목포대와 세한대에 수시 합격한 그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 문화관광 관련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었다.

그가 처음 붓을 잡게 된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미술반 선생인 정태관 화백의 권유 덕분이다.

“먹물·화선지라는 말조차 낯설어 알아듣지 못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었어. 특히 사군자를 배울 때 난(難)을 치기 위해서는 겪는 각도가 중요하데 그 점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군자를 그리는 연습만 무려 3년 넘게 할 만큼 열정을 쏟아 부었던 그는 “지금도 구도



잡기가 어렵고 여백의 미(美)를 살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지나친 겸손일까? 지난해 열린 전국단위 모충사예회초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미술대회에서 입상하는 실력을 뽐냈다.

지난달 26일에는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에서 목포 제일정보고 내 청라회 동아리회원들과 함께 문인화 전시회도 가졌다.

특히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대학교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문인화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프놈펜대학 전시에는 그의 작품 30여 점과 은사인 정태관 화백 작품 등 총 50여점이 전시된다.

정태관 화백은 “미술시간에 끼가 있어 보여 그림을 배워보고 권유했지만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르게 소화해 냈다. 부단히 재능을 개발하려는 열정도 대단했다”고 소회했다.

한국생활 9년차인 그는 돼지고기 볶음과 꽃게탕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고 된장찌개와 젓갈을 좋아한다.

“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는 게 소망”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한예진 씨.

“대다수의 다문화 여성이 겪는 일이겠지만 학부모의 역할이 힘들다. 무엇보다 가족이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다. 엄마가 먼저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국인으로 살 수 있다”면서 “노력하면 꿈은 이뤄진다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목표에 거주하는 1020여명의 다문화 가족들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그림 공부는 계속하고 싶다. 훗날 나이가 들면 바다가 내다보이는 곳에 조그만 화실 하나를 갖는 게 꿈”이라고 소박한 포부를 밝혔다. /목포=글·사진 교류식 기자 yousou@

“수많은 스승 만났지만 책만한 스승 없었다”

본사 은ekan칼럼 필진 심명섭 전남대 도서관 과장 에세이집 발간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의 심장인 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살아왔다. 출발이 없게 같은데 어느새 공직 생활의 종착역이 보인다.”

광주일보 은ekan칼럼 필진인 심명섭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장이 내년 2월 정년을 앞두고 자전적 에세이집 ‘못재 너머 사래 긴 발을’ (국학자료원) 펴냈다. 에세이집은 그동안 써온 글들을 취사선택해 모은 것으로 소소한 신변잡기부터 가족 이야기, 책과 독서에 대한 단상, 인생에 대한 성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확실하게 보이는 공직 생활의 종착역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뒤돌아볼 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한두 점 지난날들의 기억들이 내안에 꿈을 거리고 있음을 느낀다”며 발간 배경을 밝힌다.

장성 출신인 심과장의 맏자리는 남명 못재 인공이다. 못재는 그의 고향 뒷산으로 장성과 광주를 연결하는 터널(못재 터널)이 있는 곳이다.

책 제목 ‘못재 너머 사래 긴 발을’은 약천 남구만(1629~1711)의 ‘권농가’에서 따왔다. “동창이/ 밭았나/ 노고지리/ 우지진다/... 재 너머/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의 구절에서 보듯, 에세이집은 ‘못재 같은 삶의 고갯길을 자빠지고 일어 서며 무사하게 넘어 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는 “공직 생활 내내, 한눈팔지 않고 내 간에는 하고 고 했다”며 “안 되면, ‘낙수물이 댕돌을 뚫듯’ 되게 하는 것이 내 방식이었다”고 회고한다. ‘못재’를 넘는 자세로 지난 세월의 고개를 넘어왔다는 것이다. 그 같은 삶의 자세는 주경야독으로 이어졌다.

공직생활 하는 동안 조선대 박사과정(행정학 박사)을 졸업했으며 수년간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다. 2009년에는 ‘대한문학’에 수필 ‘어떤 꿈’으로 당선돼, 수필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 같은 배경에는 ‘성실과 근면이 보배’(誠勤是寶)라는 좌우명이 자리한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오늘의 자신을 지탱하게 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법. 대학 입시에 실패했던 일, 늦은 결혼 등 고



난의 시간이 적지 않았다. 저자가 자신의 글을 ‘성정통의 역사’라고 명한 것은 그러한 연유와 무관치 않다.

“통증이 심할 때마다 책 속에 묻히고 글을 썼다.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분할 때는 글로 나를 다스렸다. 반갑고, 즐겁고, 기쁠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평생을 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살아온 심과장은 독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책 읽기는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그는 “자신이 만난 수많은 스승들 가운데 책만한 스승은 없었다. 치열한 삶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었을 때 한 권의 책은 발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자 나침반이었다”고 회고한다.

정년 이후에는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있다. 어릴 적 꿈이었던 교사의 꿈을 실현해나가고 싶다.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발문을 쓴 김준욱 전남대 교수는 “심 박사가 그동안 못재 너머 사래 긴 발을 일구느라 머리가 하얗게 새졌다”며 “이제부터는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문장이나 학식이 장성만 못하다)의 후예로서 더 완숙해진 문학청년의 길을 갈 것을 기대한다”고 평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인구보건협회 광주전남지회 ‘국민참여 사진전 광주전시회’



인구보건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윤정현·사진)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가족친화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 국민참여 사진전 광주전시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광전동 금호터미널 영풍문고 앞에서 열리며 지난 5월 개최한 전국사진전 공모에서 입상한 작품 83점이 전시된다.

인구보건협회는 지난 7월부터 서울·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인구보건협회 광주전남지회 윤정현 회장은 “국민참여 사진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 ▲박종래·오남순씨 아들 현채군 이계만(정해복집 대표)·최영자씨 딸 상희양=21일(토) 오후 1시10분 광주시 서구 양동금호웨딩의전당 30층 아도니스홀.
- ▲모덕순씨 아들 한광수군 고달석·나애순씨 딸 영미양=21일(토) 낮 12시 광주시 서구 라복웨딩홀 1층.
- ▲김병기·명춘화씨 아들 태욱군 박영희씨 딸 김현민양=21일(토)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호텔캐슬 아모르홀.
- ▲이기재(지연씨유한회사 대표)·마옥순씨 아들 준혁군 송덕이(고려종합상사 대표)씨 딸 민영양=21일(토)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마루동 베일리컨벤션 2층 오비도스홀.
- ▲조길선(전 광주시 상수도 남부사업소장)·김안자씨 아들 영준군 국형욱·이인숙씨 딸 진이양=22일(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라복웨딩홀 3층 더 하우스홀.
- ▲조성철(광주지하철 송정역장)·최성숙씨 아들 주영군 박승재·유채원씨 딸 지

- 후양=28일(토)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노원동 테베일리하우스, 피로연 20일(금)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 ▲고재량(전 광주시 북구 도시국장)·신현순씨 아들 요석군 김사열·이교선씨 딸 혜진양=29일(일) 낮 12시30분 서울법원 종합청사예식장 후생관 2층.

중친회

- ▲남양송씨 아은공중중총회(회장 송순권)=20일(금) 고흥 대서면 화전길 중선재각, 안건 당면 현안사항 협의.
- ▲전주씨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 이화월례회(이보희)=23일(일)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창회

- ▲포두초 43회 동창회(회장 김팔만)=12월 5일(토) 낮 12시 부안군 번산면 대명리조트(양금실) 010-8885-8803.

향우회

- ▲재광나주향우회(회장 유덕찬) 창립 50주년 나주인 한마음 대축제=28일(토)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이에스웨딩컨벤션 2층 문의 010-2629-0808.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 보호. 062-959-234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모집

-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풍·노환), 취사, 청소 가지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 ▲충만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부음

▲유봉순씨 별세 재만(범무법인)광장 변호사)씨 모친상=발인 17일(화) 정음시

유림장례식장 3층 VIP실 063-534-4444.

▲오성필씨 별세 성희·성국씨 부친상=발인 17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조두만씨 별세 완주·원일·은희·은경·수경씨 부친상=발인 18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201호 최희아순 님 (여/89세) 子/子婦 : 김계관/정영숙, 제명/파순영, 재현/김미영/재순 女/婿 : 김순자/조관영, 미자 *발 인 : 11월 17일 *장 지 : 영암 혁신선영 *연락처 : 227-4381</p>	<p>401호 하이승철 님 (남/87세) 子/子婦 : 이경원/송영자, 경남/김미숙 女/婿 : 이명숙/정철호 夫人 : 공미숙 *발 인 : 11월 17일 *장 지 : 영암공영 *연락처 : 227-4383</p>
<p>402호 고킨복래 님 (여/81세) 子/子婦 : 노종국/종관, 종현 女/婿 : 노종남/종순 *발 인 : 11월 18일 *장 지 : 임실호곡원 *연락처 : 227-4314</p>	<p>101호 허서춘심 님 (여/89세) 子/子婦 : 김종민/연규, 양지선 女/婿 : 김명관/구현수, 주영/임우호, 기하/남정민 *발 인 : 11월 17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p>
<p>102호 최정준 님 (남/78세) 子/子婦 : 정부원/김선희, 부영/양선영 女/婿 : 정희영/김철순 *발 인 : 11월 18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6</p>	
<p>孝 金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p>	